광주서부교육청, '우리 아이 맞춤형 부모 성교육' 운영

온·오프라인 연수 추진…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생애주기별 가정연계 성교육 방안 마련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13~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2시간 동안 광주 관내 유·초·중학교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 우리 아이 맞춤형 부모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5명 이내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정보화교육실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영상을 네이버 밴드로 송출해 나머지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1월부터 진행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뮤지컬 인형극'과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교육 보드게임(드레스 러시) 활용 온라인 연수'에 이어 가족 역량강화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애학생 및 형제자매의 자기 결정력과 성폭력 예방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가 가장 어려워하는 연령별 자녀 성교육 지도역량 신장을 위해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강의, 토의·토론,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생애주기별 장애학생의 특성 ▲연령별 자녀 성교육 지도방법 ▲자녀 성교육 Q&A 등 학생 연령별 성교육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성교육 도서를 함께 지원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오주봉 과장은 "장애학생 가족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2020 우리 아이 맞춤형 부모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과 학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양 마동초, 학년별 스포츠데이 실시

4주간 걸쳐 학년별로 진행

광양마동초등학교(교장 박정헌)는 10월말부터 약 4주간에 걸쳐 학년별 스포츠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움직임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갖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여 어린이들이 평소에 학습한 체육활동의 기능을 발휘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활동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과 단체 생활로 인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광양마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대신 학년별로 나누어 행사를 실시했으며, 동학년도 2팀으로 나누어 3~4반씩만 참여하여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운동장과 학교 체육관을 활용하여 진행된 스포츠데이 행사는 1일 1학년 실시를 원칙으로 각 학년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운영되었으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와 같은 보편적인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카드 뒤집기, 콩주머니 넣기와 같은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단계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들로 학년별 특색을 살렸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된 행사였지만, 스포츠데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조금은 답답하고 힘든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활력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광양마동초등학교장(박정헌 교장)은 "코로나 19로 많은 교육 활동이 제약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스포츠데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잠시나마 무겁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려 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고자 했고, 아이들이 자신의 운동능력을 뽐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영광공공도서관, 서부권역공공도서관협의회 및 관계자 연수 개최

'사서를 위한 장르별 글쓰기' 주제로 연수 진행

영광공공도서관(관장 장혜란)은 19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및 관계자 연수를 개최했다.

서부권역공공도서관협의회는 목포공공도서관, 영광공공도서관, 무안공공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함평공공도서관, 해남공공도서관 6개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서부권역 공공도서관 사서들 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과 업무 협력을 목적으로 연4회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55차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도서관별 비대면 프로그램 공유'는 각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사서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서를 위한 장르별 글쓰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강연자인 윤소희 작가는 "사서 선생님들의 서평을 보면서 고민하여 작성한 것이 보이며 이번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열정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광공공도서관 장혜란 관장은 "협의회를 통해 서부권역공공도서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대, 국회서 여순사건 다큐멘터리 '10월에 핀 동백' 시사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공동 주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1층 제2소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생 전공연계 교육봉사활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10.19 여순 10월에 핀 동백' 국회시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금지 및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된 본 시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비례대표)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공동주최자를 비롯하여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회재(여수시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이은주(비례대표),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대학교 학생사회봉사단 이실직고팀은 재능기부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순천대학교, 한국장학재단, KBS, 광양YM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연구소 등 기관과 협조하여 여·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쉽게 사건을 알리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하였다.

특별 다큐멘터리'10월에 핀 동백'은 10.19 여순 72주기 맞이하여 순천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이실직고'팀이 광양시 초등학생들에게 여·순 사건을 알리고, 함께 역사기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32분짜리 작품이다.

순천대학교 재학생 20명과 광양 초등학생 4~6학년생 40명(방과후 아카데미 해야)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여순사건 현장을 탐방하고 자료들을 조사하며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멘토링 활동을 통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담아내어 영상을 관람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